

인 터 서 브 프렌즈

함께 돕는 공동체,
**Interserving
Fellowingship**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_ 김민철 이사장

가치중심 공동체로의 성장

_ 인터서브 정책회의 리뷰

나에게 딱 맞는 은혜

_ 전아름 인도 온트랙

세상에 숨겨진 아름답고 신성한 나라

_ 파키스탄

contents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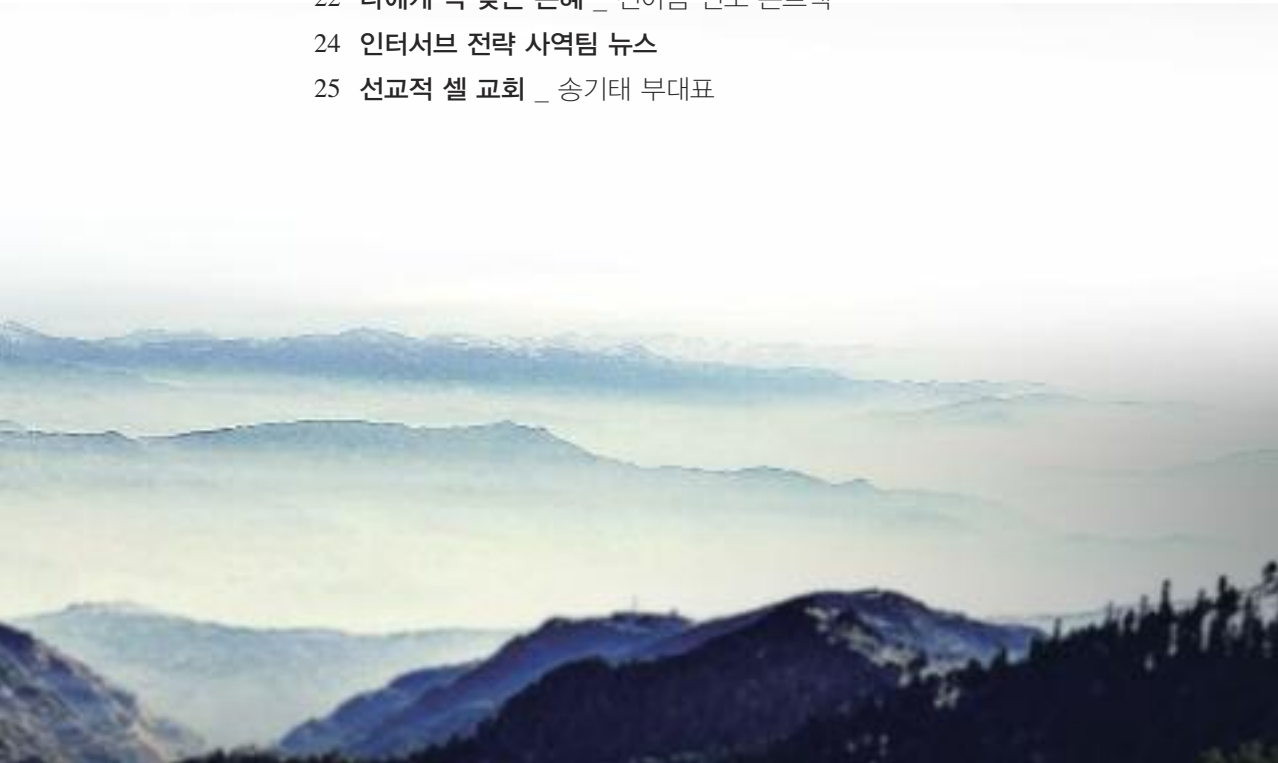
- 03 함께 돕는 공동체, Inter-serving Fellowship _ 조샘 대표
- 06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_ 김민철 이사장
- 08 Save the date! _ 2018년 인터서브 연계회
- 09 새롭게 하나된 공동체 _ 임시총회 리뷰

People

- 11 신입이사 소개
- 16 인터서브 정책회의 리뷰 _ 황성연, 최엘지 파트너
- 17 미션얼 패밀리 _ 조안나, 오미연 매니저

Ministry

- 20 세상에 숨겨진 아름답고 신성한 나라 파키스탄
- 22 나에게 딱 맞는 은혜 _ 전아름 인도 온트랙
- 24 인터서브 전략 사역팀 뉴스
- 25 선교적 셀 교회 _ 송기태 부대표



Value

가치|Value는 사람과 사역에 우선합니다.



함께 돕는 공동체, Inter-Serving Fellowship!



봄이 오는 동경 중심지 시부야의 사거리. 파란불이 터지자, 90초의 짧은 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길을 건너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십자 형태로 건널 수 있는 개방형 건널목에서 사람들은 짧은시간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어제 저는 이곳에서 두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은 조선족으로 중국 연변에서 태어났고 대학 졸업 후에는 중국 상해와 일본 동경에서 십여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상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한참 뜨거울 때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삼십대 중반,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제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한때 교수였던 나와 10년만에 진로를 상의합니다. "제가 선교에 쓰일만한 전문성이 있을까요?"

이 날 두시간 동안의 대화가 이번 동경 출장의 하이라이트였다고 느꼈습니다. 통일 이후의 동북아와 한반도, 전혀 다른 선교적 환경으로 들어갈 미래에 이만큼 훈련 받고 준비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디아스포라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해오신 귀한 자원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청년들을 우리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방향은, **미션일!** 일상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며 미래에 북한과 연결되는 직장이나 창업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선교사** 텐트메이킹을 하는 선교사로 방향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아주 유사하지만 다르고, 두가지 모두 귀합니다. 두 경우 모두 새로운 단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인생의 여정에 현재 어디에 서 있고 미래의 방향을 위해서 어떤 궤도수정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오리엔테이션 ori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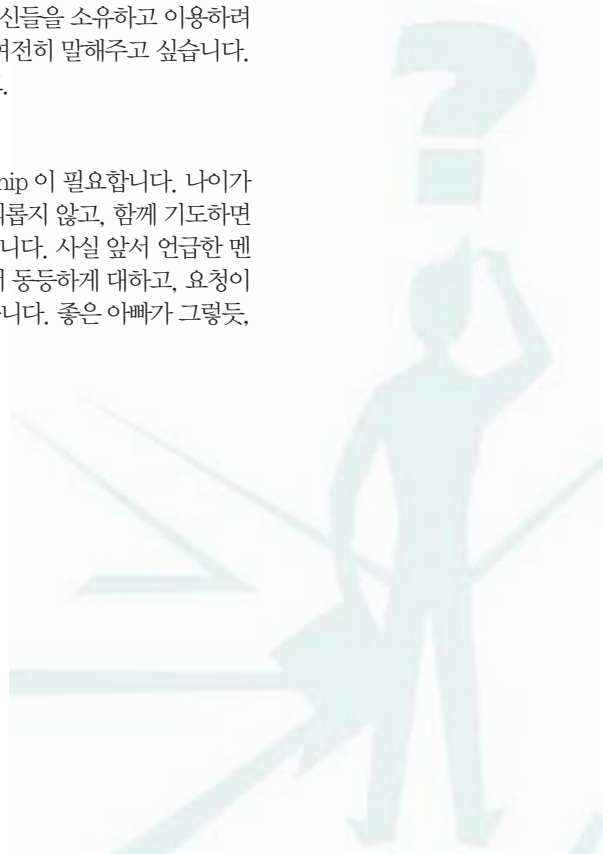
이 두 가지 선택에는 각기 다른 조정이 필요합니다만, 공통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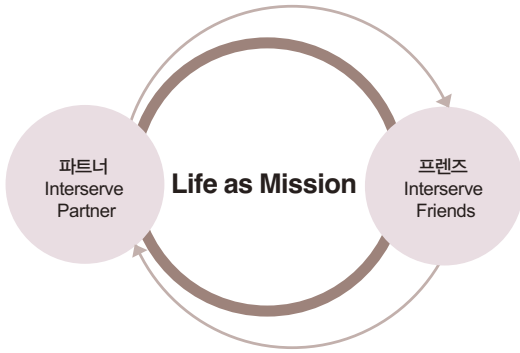
하나,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대학생이 된 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많은 도움이 여전히 필요한가?' 에 놀라곤 합니다. 어디 청년뿐일까요? 지난 1년 반 동안 저는 대표로서 많은 선교사들이 방향을 못찾고 혼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때 멘토링은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길을 먼저 가며 고민했던 선배들과의 대화는 불확실성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이기고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자신들을 소유하고 이용하려 했던 선배들에 대한 아픈 경험이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여전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멘토는 소중하며,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어른들도 있다"고.

둘, 친구들입니다.

비슷한 방향을 가고 있는 친구들과의 펠로우십 fellowship 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같을 필요는 없고, 성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가면 외롭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 교회를 새롭게 하였던 성령의 지혜와 위로와 용기가 임합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멘토의 경우도, 좋은 멘토라면 친구와 같습니다. 성인으로서 동등하게 대하고, 요청이 있을 때만 돕고 그들의 경계를 존중하여 함부로 넘지 않습니다. 좋은 아빠가 그렇듯,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듯.





Learning ▶ Action ▶ Missional Life

결국, 좋은 선교적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터서브의 본질도 이것이 아닐까요? 인터서브의 본명은 Inter-Serving Fellowship “서로 돕는 펠로우십”입니다. 이 펠로우십에는 선교사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프렌즈들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대의 선교적 상황 가운데, 프렌즈들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역할만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동안 준비해오신 하나님의 소명, 즉 미션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와서 “여러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선교적 삶 “Missional Life”을 살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인터서브는 삶 자체를 선교로 드리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지난 인터서브의 역사와 문서들을 리뷰하고 브레인스토밍하며, 인터서브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펠로우십임을 재확인했습니다. 2018년은 선교사들과 프렌즈들이 이 방향 가운데 함께 자리나야 할 시점입니다. 위의 도표에서 보여주듯, **우리를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learning, 실제 삶에서 선교를 실천하고 acting, 하나님과 함께 미션을 살아가는 선교적 삶 missional life 에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서있는 우리들.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 새로운 오리엔테이션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일 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사명의 길, 선교의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에 함께 돕는 공동체 Inter-Serving Fellowship!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이며 친구가 되어주는 공동체성의 성장을 올 한해 기도하고 소원해봅니다. **✝**

조샘 (인터서브 대표)



김민철 이사장

- 전북 대학교 의대 의학박사 M.D./ Ph.D
- 전주 예수병원 병원장 (2004-2010)
- 샘병원 군포암전문병원장
- 엠디앤더슨 암센터 (M.D. Anderson) 연수
- 지식 경제부
“한국의 존경받는 CEO대상” 수상 (2008년)
- 기독교학연구원장
- 한국호스피스협회회장
- 한국누가회 이사장
- 나이지리아 SIM선교사 역임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신임 이사장 소개

2018년 2월 임시 총회를 통해 김민철 이사께서 새로운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인터서브 이사장으로 섬겨 오신 이문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사회의 격동기를 교회와 함께 살아오신 경험, 성경 신학의 해박함, 총체적 선교에 대한 이해 등, 이문식 목사님은 인터서브가 균형있게 서 갈 수 있도록 중요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6년 동안 이문식 목사님과 동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문식 목사님의 아름다움 섬김을 기억하겠습니다.

김민철 이사장을 새로운 이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사장의 이임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인터서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인터서브 모든 가족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인터서브 166년 역사에서 신실하신 선배님들이 걸어간 발자국을 이어가야 하는 이사장 책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서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그동안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이문식 이사장님과 조샘 대표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섬김으로 공동체를 지탱해주신 사무실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그 역사에는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비전을 공유하며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가 묻어나게 마련입니다. 초대 이사장님과 대표님,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여기까지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 안에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이사회와 행정 팀이 존재하는 목적은 열방에 계신 파트너님들일 것입니다. 일상의 편안함 누리를 내려놓고 타문화의 장벽 속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삶을 드리는 파트너님들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모로 이런 책임을 맡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실 저의 선교사 경력은 그리 길지도 않고 폭넓은 경험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좁을 수밖에 없는 제 시야를 더 넓게,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저의 부족함은 오히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서로 지체가 되어 함께 꿈꾸고 소망하고 동역해 가는 동안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써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필요할 때면 앞서 가신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그러운 어깨를 빌려주시고 방향도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현장의 파트너님들께서도 그 나라를 위한 의견과 조언들을 주시고 따뜻한 교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선교학 공부를 할 때 첫 시간에 미들턴(Vern Middleton) 교수님이 강조하신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육신(Incarnation)이다”라는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하시며 그 중심을 ‘강도 만난 자’로 바꾸셨습니다. 선교에서 성육신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선교의 중심에 둔다면 로잔대회에서 빠딜라(Rene Padilla)를 통해 강조된 통전성이 살아나고 현실로부터 괴리되지 않는 현장성도 살아날 것입니다.

새로이 열려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원론적인 개념의 저 세상만이 아닐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 (마 6:9 This, then, is how you should pray)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성육신적인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인터서브 모든 가족과 함께 가는 이 길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Save the date!

2018년 인터서브 연계회

◎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저녁 7시, 함께 모여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SNAP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매달 초 페이스북과 카카오프렌즈를 통해 공지됩니다.
인터서브의 행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본부로 연락주세요. 070-7352-6510

C A L E N D A R

<p>01 JANUARY 2018</p> <p>2일 인터서브 시무식 13일 다텐 커뮤니티</p>	<p>02 FEBRUARY 2018</p> <p>10일 다텐 커뮤니티 21일-23일 정책회의 24일 임시총회 및 중앙이사회</p>	<p>03 MARCH 2018</p> <p>10일 다텐 커뮤니티 19일 정기기도회 31일 통일과 북한을 위한 기도회</p>	<p>04 APRIL 2018</p> <p>6일 요벨공동체 커피캠프 14일 다텐 커뮤니티 23일 정기기도회 25일 요벨 공동체 예배</p>
<p>05 MAY 2018</p> <p>7일 부산 아버지 위로회 8일 전주 아버지 위로회 12일 다텐 커뮤니티 21일 정기기도회 24일 Mission & Live "무슬림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 30일 요벨 공동체 예배</p>	<p>06 JUNE 2018</p> <p>9일 인터서브 인사위원회 9일 다텐 커뮤니티 18일 정기기도회 23일 Mission & Live "리더십 이 자라는 공동체" 27일 요벨 공동체 예배</p>	<p>07 JULY 2018</p> <p>14일 다텐 커뮤니티 18일 ~ 21일 파트너 캠프 25일 요벨 공동체 예배</p>	<p>08 AUGUST 2018</p> <p>6일 ~ 10일 캔디데이트 스쿨 11일 다텐 커뮤니티 29일 요벨 공동체 예배</p>
<p>09 SEPTEMBER 2018</p> <p>8일 다텐 커뮤니티 17일 정기기도회 26일 요벨 공동체 예배 원코리아 리트릿</p>	<p>10 OCTOBER 2018</p> <p>13일 다텐 커뮤니티 22일 정기기도회 31일 요벨 공동체 예배</p>	<p>11 NOVEMBER 2018</p> <p>10일 다텐 커뮤니티 19일 정기기도회 28일 요벨 공동체 예배</p>	<p>12 DECEMBER 2018</p> <p>8일 인사위원회 8일 다텐 커뮤니티 21일 송년 예배 26일 요벨 공동체 예배</p>

새롭게 하나 된 공동체 2018 임시총회 및 중앙이사회 스케치



풍성한 은혜 가운데 2018년 2월 21일, 임시총회와 14회 중앙이사회를 잘 마쳤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총회 전 3일간, 인터서브 가운데 처음 시도된 정책회의도 있었습니다. 정책회의를 통해 우리가 하나인 공동체임을 확인하였고, 더욱 굳건히 함께 하기 위한 뜻깊고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회를 위하여 전국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이사님들과 파트너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임시총회는 사단법인 설립 결정과 더불어 신임 이사장님의 이 취임식이 함께 진행된 매우 중요한 총회였습니다.



지난 6년간 충성됨으로 섬겨주신 이문식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주 이사장이신 김민철 이사님을 인터서브 코리아의 신임 이사장으로, 백은찬 이사님을 부이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인터서브 국제이사인 정민영 선교사님도 한국 이사로 합류하면서 총 일곱 명의 신임 이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인터서브 코리아가 우리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환된 삶과 공동체” 과 목적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 기쁨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결정하고 결의한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충성이 남아있습니다. 파트너, 프렌즈(이사), 본부가 한마음,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에 귀한 연합을 이룰 것을 기대합니다. 

최영준 파트너



People



사람 People은 사역보다 소중합니다.

Meet and Greet!



2018년 2월, 해가 바뀌면서 인터서브 공동체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7분의 프렌즈들이 새롭게 인터서브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는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새롭게 임명된 7분의 신임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 히브리서 10장 24절-25절



김용태 이사 - BAM 기능 이사 / 크로스캠(주) 대표이사

4년 전 IBA컨퍼런스에 처음 참석하면서 BAM을 알게 되었고 어느새 BAMer를 꿈꾸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터서브코리아에서 이사로 섬기게 되니 모든 것이 주님의 예비하심과 은혜임을 간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경험 없이 시작한 작은 접착제 공장을 꾸려 오면서,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인터서브와 함께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진수 이사 - BAM 기능 이사 / 트리니티소프트 대표

저는 BAM기업인 (주)트리니티소프트의 대표로 섬기고 있으며 대학에서 미술사를 강의하는 아내 이상윤 집사와 든든한 딸 효은이, 개구쟁이 아들 동은이와 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충신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이 저희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제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인터서브와의 연합을 통하여 열방의 모든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부족한 죄인을 인터서브로 불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열심으로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남궁현 이사 - BAM 기능 이사 /

현 지비엠네트웍스 코리아, (주)지인파트너스, (주)파인빌 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인터서브 선교회 기능 이사로 섬기게 된 남궁현입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좋게 봐주시고 귀한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조금해 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걷고 계신 인터서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라 우리에게 독생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만 기대하며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김진수 신임 이사)



**손원민 이사 - BAM 기능 이사 /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겸임교수**

지난 160여년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귀한 단체에 함께하게 됨이 큰 영광입니다.

저는 26년간 금융과 비즈니스 영역에서 일하면서 14년간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BAM선교사를 훈련시키는 Neo Moravian House를 비롯한 BAMer들을 세우는 일과 BAM기업을 돕는 Kingdom Fund인 SfK(Synergy for the Kingdom)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덕규 이사 - BAM 기능 이사(신임) / 오쌤커리어연구소 대표

인터서브 후원자로 연결되어 15년을 넘게 함께 왔습니다. 한 단체와 이렇게 오래 사귄 일은 드문 일입니다.

저는 오쌤커리어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대학에서는 진로강의, 기업/병원에서는 인사조직경영컨설팅 진행중입니다.

이제 기능 이사로 더 강한 연결 고리가 되어 인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허락하신 달란트로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정민영 이사 - 정책 기능 이사 / 전 GBT 성경번역선교회 대표

인터서브의 프랜드로 함께 교제하고 동역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섬김의 기회를 수락했습니다.

먼저, 인터서브의 핵심가치와 사역철학이 그간 제가 고민하며 추구하던 방향과 맞아 오하려 제게 큰 배움의 기회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또한, 과거 위클리프 국제이사회를 섬기면서 장외이사들의 "외부자 안목"이 내부자들의 지평을 넓혀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부족하지만 저같은 외부자가 함류해 이종교배의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여러 동지들과 더불어 걷게 될 선교의 여정을 기대합니다. 살롬!



최종태 이사 - 재정 후원 이사 / 샘물호스피스병원

많은 선교단체가 있지만, 인터서브는 이 시대에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적인 선교란 어떠한지 하는지를 그 동안의 사역을 통해 충실히 실천해 온 소중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의료봉사를 다니면서 의료활동이 선교를 위한 하나의 그저 좋은 방편인지에 대해 회의하곤 했습니다. 인터서브에서 추구하는 business as mission (BAM)의 선교전략은 이러한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1주년이 되는 아내와 어느덧 28세의 청년으로 자라 준 아들과 용인의 한적한 교외에 위치한 호스피스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들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동행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삶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신앙의 가치관과 어울리는 인터서브를 알게 되고 동역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

가치 중심 공동체로의 성장

2018년 2월 21~23일 인터서브 파트너들이 세계 각지에서 자신들의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한국으로 모였다. 24명 파트너, 3스텝, 3명의 이사님의 참여로 인터서브 미래를 위한 정책회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인터서브에서 사역 경험이 많은 시니어들, 현재 권역별 파트너 대표들, 국제 본부 RD, 본부 파트너들로 구성되었으며, 인터서브가 현재 당면해 있는 사안과 미래의 사역과 관련된 일들을 주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었다.

정책회의는 다음 질문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다.

“2013년 이후 세계는 큰 변화들을 맞이하였다. 난민, 이슬람, 국가주의, 한국 정치 경제 상황 변화, 초임 선교사의 고령화, 청년들의 세계관 변화, 교회의 정체성 변화 등과 같은 현재의 다양한 변화에 인터서브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논의 결과로 우리는 아래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국제 인터서브의 비전과 같이 한국 인터서브는 바른 교회론과 선교론으로 지역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동의하였다.

국가들의 민족주의화로 인한 선교사의 비자 환경이 악화하여 가는 상황에서 청년세대들이 선교에 대해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필요함에 공감하였다. 더불어 파트너들이 인터서브의 가치를 다듬는 일을 계속하여 신앙과 삶의 일치를 더욱 실천해야 함에 동의하였다.

<인터서브 코리아의 시스템과 구조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먼저, 인터서브의 비전과 핵심가치에 대한 리뷰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맞게 인터서브 코리아의 시스템과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본부 사역팀은 인터서브 코리아의 조직 역량 강화, 공동체성 강화, 인터서브 지배구조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서브가 이해 관계자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가치 중심적 공동체로 성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터서브 파트너들을 공동체 안에서 도와야 할 때에도 서로를 잘 알지 못하기에 돕는 일에 주저하는 것 같기에 먼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인터서브 코리아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단순하게 재정을 돕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성의 강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인터서브 코리아 30주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이 논의의 결과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공동체적 참여와 준비, 파트너들의 영성 심화, 교회 협력과 팀 사역의 활성화, 인터서브 공동체성의 강화로 요약되었다. 30주년 기념 대회가 만남을 위한 모임이 아닌 인터서브 파트너들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면서, 가시적으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며, 이를 위해 전체 파트너들에게 의견 수렴 후 결정하기로 했다.

파트너회의 역할을 통한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 권역별 파트너 대표를 온라인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파트너 회 내규를 개정하여 권역별 파트너 대표들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파트너 정책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필드 파트너들의 필요를 본부의 정책 결정 시 반영하는 의사소통의 장으로 만들기로 하였다.

정책회의 통해 우리는 6가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1. 파트너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준비
2. 파트너회 내규 개정
3. 30주년 기념을 위한 조사 팀 구성 및 실행
4. 30주년 기념 행사 준비팀 구성
5. 인터서브 내 재정 Pooling 연구팀 구성
6. 정책회의 정례화를 위한 기획팀 구성

시니어와 권역별 파트너들의 귀한 메시지와 이사님들의 식사 섬김, 본부 매니저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 첫 인터서브 정책회의는 풍성한 교제와 의견 교환의 장이었다. 한국 인터서브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국 인터서브 역할에 대한 성찰을 통한 미래의 방향성을 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 卍

황성연 파트너 (파트너 대표)



패밀리 스토리 <인터서브 정책 회의 리뷰>

“Back to the Basic”

인터서브 코리아가 머지않아 30주년을 맞는다. 2002년 인터서브 식구가 된 이후 나는 인터서브 코리아보다는 인터서브 인도팀과 더 밀착되어 있었다. 사실 인터서브 코리아의 정책과 미래를 그리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나보다 훌륭한 파트너들이 많기에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고, 한국보다는 현지에서 체험하는 인터서브가 더 가깝게 느껴진 것도 한몫했으리라. 아마도 많은 파트너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2박 3일간 안성 수양관에서 진행된 인터서브 브레인스토밍 정책회의는 나에게 있어 인터서브 코리아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서서히 타성에 젖어가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Back to the basic’을 결심했다.

회의 첫날 국제본부에서 섬기고 계신 이주희 파트너께서 인터서브의 비전과 목적 선언문을 외우고 있는지 물어보시며 함께 이 문구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셨다. 나에게 있어 비전, 목적선언문 등은 회의할 때나 등장하는 한 번쯤 읽어주어야 하는 익숙한 문구 정도였으나 이 날은 참으로 신선하게 다가왔다.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Lives and Communities Transformed through Encounter with Jesus Christ)

목적 선언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대 우리는 이 비전 아래, 목적 선언문에 표현된 대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이다. 정제된 문구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다.

지난 3년간 한국의 정치, 사회, 교회 등의 변화가 선교계에 미친 영향들과 그 결과로 나타난 양상들, 이에 인터서브 코리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파트너들이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면한 30주년 기념행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도 다양한 그룹으로 자유롭게 나누었다.

재정 나눔에 대한 의논들이 있었다. 공동체성이란 이름으로 나눔에 참여하지 못하는 파트너들이 죄의식을 갖도록 하지 말아 달라는 솔직한 요청도 있었다. 재정 나눔과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주제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회의 진행이 무거워져서 머리가 아플 때쯤 파트너 중 한 사람이 말씀과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성령께 인도를 구하며 묵상하는 이 시간은 주님보다 내가 앞서 나가고 있지 않는지, 말씀 가운데 나를 그리고 우리를 조명해 보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회의를 진행하는 조셉의 성숙한 리더방식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정중하고 이해하려는 파트너들의 적극적 태도였다. 앞으로도 인터서브 코리아를 사랑하는 파트너들과 이사님들이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을 나누는 정책회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해본다. **✚**

최엘지 파트너

미션얼 Family

인터서브 본부에 새롭게 합류한 두 매니저들을 소개합니다.

올해 3월부터 멤버 케어로 선임 서눔바 선생님과 함께 새롭게 협력하게 된 조한나(Hannah Cho Ph.D) 멤버 케어 담당자입니다. 파트너님들의 귀한 헌신과 믿음의 삶에서 전해오는 기도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을 하게 됩니다.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전공분야인 선교사 멤버 케어, 타문화 교육학, 가족 심리치료 및 적성검사를 기반으로 파트너들의 선교사 재교육 및 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것입니다. 인터서브 가족의 일원으로서, 파트너 한 분 한 분을 섬기며, 기도로 함께 나아가게 되어서 저로서 큰 영광입니다.

멤버 케어 분야는 아직 미비하지만 조금씩 파트너들의 missional life에 총체적, 전인적 돌봄과 나눔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파트너들의 동참과 돌봄을 통해서, 멤버 케어 시스템 구축 및 매니지먼트(management)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이며 시기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섬기고자 합니다.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도록 함께 마음을 다하며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파트너님들의 귀한 헌신과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곁에 멤버 케어팀이 함께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조한나 매니저 - 멤버 케어

안녕하세요. 인터서브 코리아 본부에서 재정부 후원파트를 섬기게 된 오미연입니다. 인터서브라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달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인터서브 안에서 함께 하며 마음에 새겨진 것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을 열망하고 서로 도와가며 섬기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을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인터서브 안에 잘 적응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부으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재정부의 맡겨진 일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는 길목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미연 매니저 - 재정부 후원파트

Ministry



사역 Ministry은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파키스탄

세상에 숨겨진 아름답고 신성한 나라

따뜻한 환대, 놀랍도록 관대한 사람들,
아이들을 향한 사랑, 숨이 막히게 아름다운 자연!
파키스탄을 생각할 때 이런 단어들만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2018 인터서브 필드 소개 _ 파키스탄

따뜻한 환대, 놀라운 관대함, 아이들을 향한 사랑, 숨이 막히게 아름다운 자연! 파키스탄을 생각할 때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신성한 땅(Sacred Land)의 저자 Matt Vaughan은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파키스탄은 국가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에는 아름답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온화하며 희망으로 가득 찬 얼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수많은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이른 아침 말쑥하게 옷을 입고 학교로 등교하는 아이들의 무리, 존경하는 작가를 만나기를 고대하며 라호르 문학축제를 가득히 메운 청년들, 언제나 변함없이 따뜻한 환대와 자주 내가 손님이라는 이유로 요금을 받기를 거부하는 택시 운전자, 라호르 바트 샹히 모스크의 우아한 첩탐과 우뚝 솟아 있는 카간 골짜기의 산들, 머리(Muree) 지역의 소나무 언덕을 가로지르며 비행하는 에메랄드빛의 앵무새 중대들. 이 모습들은 서구인들에 의해 거의 문서화 된 적도 없고, 미디어에서 서술하는 일반적인 파키스탄의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야말로 바로 파키스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삶의 모습입니다. 파키스탄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6년을 살아가면 느끼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파키스탄을 “신성한 땅”으로 묘사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터서브 파키스탄팀

카자흐스탄, 호주, 한국, 칠레, 미국, 스코틀랜드,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35명의 파트너가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 땅에 비추는 것을 보리라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전략적인 국가에서 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유연함, 배우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삶과 자신에 대한 유쾌함, 주변을 돌아보는데 열정,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일 할수 있는 사람

인터서브 온트랙을 통해 단기 선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사역과 온트랙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070-4352-6017, ontrack.isk@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파키스탄 몰탄시에 있는 여성 기독병원에서 6주간을 보낸 의과대학생 박에스터 자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여성 기독병원은 1899년 설립되었으며, 100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는 선교병원입니다.

파키스탄에서의 나의 경험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초적이고, 실제적인 의학”입니다. 복잡한 검사를 할 수 없고, 다양한 분과의 팀들과 광범위한 토론도 필요 없으며, 수술을 위한 멋진 장비도 없었습니다.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은 당신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만으로도 삶의 변화를 누립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2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튀긴 빵과 비리야니 밥, 아이스크림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전하면, 그들을 깜짝 놀라곤 합니다. 아스피린과 같은 간단한 약은 여성들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 번의 사산과 유산의 경험이 있는 산모가 병원에서 의료 처치를 받은 후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조산으로 31주에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 박동이 매우 낮았고, 호흡이 어려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처치를 했지만, 인큐베이터나 인공호흡기가 없이는 연약한 생명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다. 결국, 그 아기는 태어난 지 20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다. 만약 영국이었다면, 그 아기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더 컸을 것입다.

임신 24주 차의 20대 초반 환자가 출혈로 병원에 왔습다. 그녀는 이미 4번이나 같은 시기에 아이를 잃었습다. 그녀의 남편은 인내심을 잃었고, 살아 있는 아이를 낳지 않으면 둘째 부인을 들일 것이라 협박했습다. 슬프지만 이것이 파키스탄이 당면한 현실입다. 불임을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결과로 보며, 산부인과 병력을 가진 여성들은 어둠과 접촉해서 생기는 “아트라,atra”(현지어로 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여성들은 사회 속에서 격리당하게 됩다. 심지어는 병원 안에서도 같은 여성들이 불임이 두려워 그들을 피합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작습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치유의 선지자인 “이사,Isa”(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합다. 환자들은 이 기도를 감사히 받습다. 기도를 통해 종종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어지는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다. 의료진들은 환자들과 자주 기도 합다. 우리의 능력과 기술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기도만이 그 답이 됩다. **✝**



사역의 기회

교육(MK학교): 예체능, 언어, 기숙사 사감/도우미, 교과 교사 등 MK학교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인터서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방문해 주세요.

의료: 의료실습생, 의사, 간호사 등 모든 영역의 의료 인력

- 훈련: 1) 현지 교사들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 컨설턴트/ 교사
2) 비디오와 라디오 분야의 미디어 컨설턴트 혹은 전문가

나에게 딱 맞는 은혜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6개월동안 온트랙으로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의 시내에서 약 2시간 정도 이동해야 나오는 작은 시골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미술과 음악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직업이 유치원교사였기 때문에 평소 선교지에서의 어린이사역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선교현장에서 학교사역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함께 생활한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처음엔 힌디를 몰라서 아이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학교로 가는 차 안에서 수업 때 사용할 힌디를 조금씩 외워서 몇 마디씩 사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몇 단어 아닌 말이지만, 서로의 눈짓, 손짓, 표정을 보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점점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의사전달도 원활해지면서 말이 아닌 마음으로 소통하는 진정한 소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없던 마을에 학교를 세워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선한 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없는 마을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모습을 통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은 씨앗이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동안 두 선생님 가정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바람에 적응기간엔 조금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배운 것들이 더 많았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인도의 단편적인 뿐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었고, 힌디어 예배와 영어 예배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친구로 사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동안 여러 파트너 선생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다 다르지만 모두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르심의 시기와 모습, 방향 모두 다르지만 같은 복음을 가슴에 품고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배움과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도에 나가기 전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막연한 두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도에 가니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은 일일지라도 나에게 딱 맞는 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딱 맞는 은혜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인격적으로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딱 맞는 은혜를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한국에서 온트랙을 준비하는 동안 함께 살게 될 파트너 선생님들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단기선교는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인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사역을 통해 보고 배우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지를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6개월 잠시 그 곳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준비해두신 나에게 딱 맞는 은혜를 누리며 살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나를 부르신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실지 알 수 없지만, 내 삶을 인도하시며 늘 동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아름 (인도 온트랙)



“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어떡하지?
 막연한 두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 곳에 별 것 아닌 것 같은 일일지라도
 나에게 딱 맞는 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딱 맞는
 은혜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Come and Join us!

인터서브 전략 사역팀 스토리

여러 모양으로 열방을 섬기는 인터서브 전략 사역팀
인터서브는 2017년부터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과 열방의 선교적 상황을 성찰하고 더 다양한 모양으로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사역팀을 구성하여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1. 원코리아팀의 사역이 상반기동안 주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정리되어 하반기에는 이 일에 동참하길 원하는 분들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2. 결혼한 A자매가 7월말에 아기를 출산합니다. 20대 초반에 많이 아팠던 자매입니다. 건강한 아기를 순산하도록 기도해주세요.
3. 싱글인 B자매의 개인회생절차가 잘 진행되어 빚을 탕감받길 기대합니다. 매일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오고 있고 앞으로 최소 5년은 신용이 없어 재정이 힘들텐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4. 한국 내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과 시간에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담당자: 이민파트너 fromhim2016@gm

원코리아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탈북 여성들을 섬깁니다)

원코리아팀이 섬기는 탈북민 창업공동체인 요벨과 지난 3개월간 매주 월요일에 리더십 북 모임을 하며 회사 시스템에 대해 분석,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벨은 올여름부터 다른 탈북 사업체인 멕시칸 음식점과 통합하여 공동대표제로 1년간 운영됩니다.

작년 12월 말에 결혼한 A자매는 좋은 시부모님과 남편의 사랑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생이며 B싱글맘인 자매는 여전히 약간씩 아프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관리사가 돕고 있지만, 엄마와 딸 생활비로 얻게 된 빚으로 도저히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작년 1월에 개인적인 만남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주님께서 이 자매 내면을 많이 만지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데 본인도 상황을 안 좋지만 예전처럼 절망, 걱정하지는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한다고 합니다. 원코리아팀은 올해 상반기를 사역의 내적 성찰을 목표로 재정관리사 자매와 함께 셋이 팀을 이루어 신화책을 읽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민 사역 (우리 중에 나그네 된 자들을 환대하고 섬깁니다)

선교한국과 함께 1월 4회에 걸쳐 <우리 친구 무슬림>코스를 마쳤습니다. 10여 명의 참가자들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왜 평범한 무슬림들과 친구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1월 마지막 주 수요일 Y국 형

제들 3명과 경복궁을 다녀왔습니다.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처음 한국의 고궁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마음 편한 고궁 나들이를 통해 고단하고 지친 삶을 잠시나마 잊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 보다 깊은 사귄으로 우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2월 구정휴가 기간에는 주님을 만난 형제들과 산정호수와 절원을 다녀왔습니다. 회심한 형제들이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데 모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같이 맘껏 뛰어 놀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1. 이주민/ 난민 구도자들을 위한 쉼터에 머물고 있는 K와 M형제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이들의 난민 신청과 허입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2. 복음을 들은 Y국 A형제는 자신의 나라에서 허용되는 '카트라는' 마약성분이 있는 식물로 가지고 있다가 마약 소지혐의로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형제가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
3. 주일 예배에 찾아오는 아랍 무슬림들이 참된 영적 공동체를 만나게 하소서

담당자: 김기학 파트너 / khkim21c@gmail.com

다음세대 텐트 메이커 사역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전문성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20-35세의 청년들을 텐트 메이커로 양성합니다)

다테 사역은 커뮤니티와 프로젝트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작년 10월부터 3월까지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5명 내외의 선교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Tentmaking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임에 참석한 청년 연인원은 35명입니다.

자발적 요청으로 1월부터 JBS라는 BAM 선교 훈련을 시작하였고 11명의 청년들이 매주 월요일 저녁에 모이고 있습니다. 4월 커뮤니티는 시니어와 함께 하는 모임으로 진행하며, 올여름 '엑스페디션'으로 청년들과 Tentmaking과 BAM 사역 현장을 탐방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청년 선교 헌신자의 Pool을 넓히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동역자와 청년 헌신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1. 다테 사역을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2. 4월의 시니어와 함께하는 정기모임과 엑스페디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담당자: 비제이 파트너 tentmakervijay@gmail.com

선교적 셀 교회


선교적 교회의 DNA : 소그룹 모임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세포(cell)와도 같은 기초 구성 요소들이다. 우리 몸의 성질은 세포의 캐릭터에 의해 결정된다. 암 덩어리들이 암세포들이 증식해서 전체 몸으로 퍼지는 것처럼 말이다. 교회의 소그룹 셀 모임은 주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매우 중요한 단위이다.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려면 반드시 셀 모임이 선교적 셀 모임을 지향해야 한다. 셀 처치안에는 교제와 같은 내부적 요인과 전도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공존한다. 셀 처치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두 가지 요인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셀 모임별 선교사 후원과 중보 기도 : 셀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실시되고 있는 선교적 활동 중의 하나가 바로 셀 별로 선교 활동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미국 남침례 교단에 속한 교회들의 경우에 셀 단위의 후원을 매칭 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운영한다. 셀에서 모아진 현금만큼 교회의 선교 예산에서 지원하여 후원금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함으로 셀 단위의 성도들이 재정과 기도로 후원함으로 선교사와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는 큰 장점을 발휘하고 있다.

셀 모임을 할 때 마다 선교지의 상황과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교적 활동이다. 셀 모임에서는 선교 담당자를 선정해서 매 주 모임 때 마다 선교 담당자가 기도 제목을 준비하여 중보 기도 모임을 인도한다. 이를 통하여 각 셀에서는 후원하는 선교사 가정과 선교지의 사역에 매주 참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선교 중보기도는 셀 멤버들이 매 주 마다 선교 현장에 대한 소식을 접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안목을 키울 뿐 아니라 현지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축적해 가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셀 교회의 오이코스 전도 : 셀을 통하여 공동체적인 전도를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셀 멤버들이 주위에 믿지 않는 지인들의 명단을 적어서 셀 모임 때마다 기도한다. 그러면 조금씩 성령께서 그 대상들에 대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도자 명단을 낸 지체들이 그들에게 전화할 수도 있고 만나서 식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여 매 주 마다 중보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전도 대상자를 움직이시고 결국에는 셀 모임에 오게 된다. 그러면 셀 멤버들은 그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낯설지 않게 셀에 적응하도록 수용성이 확보된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셀을 통하여 전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은 매우 강력하다. 또한 이렇게 하여 식구 수가 늘면 셀을 분가하기도 할 수 있다.

선교적 셀 교제 : 교제는 주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내용을 나누는 가 하는 것이 이슈이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가령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과 자신의 취미 생활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다. 자신의 아이들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화가 그런 테두리 안에만 갇혀 있다면 그것은 소그룹 교제의 한계를 금방 드러내게 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은 자극과 도전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소그룹에서 선교적 직장 생활과 선교적 가정 생활을 바탕으로 한다면 소그룹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겠는가? 당연히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선교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직장을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는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서로에게 유용하다. 그것이 성공 사례이든 실패 사례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또한,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가려는 노력 가운데 경험하는 이야기도 매우 중요하다. 부부 관계의 하나 됨이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면서 겪게 되는 학교생활과 친구 관계 등을 나눌 수 있다면 그러한 대화 가 나누어지는 소그룹이야말로 살아 있는 선교 교육의 장이 아니겠는가?

선교적 셀 모임 : 교회들이 셀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러한 방식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선교하지 않고 선교할 때 성장하듯이 셀 모임에서도 선교적 사명을 실천할 때 셀 모임의 건강성이 제고되며 결국에는 셀 번식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셀 교회가 지역 교회로서 선교적 본질과 사명을 갖게 되듯이 소그룹 단위인 선교적 셀모임은 선교적 본질과 사명을 실천하게 하는 아주 좋은 구조를 제공하게 된다.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은 반드시 소그룹 셀이 선교적 요소를 갖추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셀이 모여서 형성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송기태 파트너 (인터서브 부대표, 교회 관계)

광장에 선 기독교

미로슬라브 볼프,
김명운 옮김,
IVP, 2011



저자 미로슬라브 볼프는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풀러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봉직했고 현재는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신학과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예일 신앙과 문화 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면서 종교와 인류 공영의 문제, 세계화, 화해, 직업과 영성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인간의 변역을 파악하는 세 가지 단계, 즉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보편적인 선행, 그리고 경험적 만족감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는 하나의 방법은, 사랑하는 대상이 축소되는 역사로 이해하는 것이다. 무한한 하나님의 광대함으로부터 보편적인 인간 공동체라는 경계로 사랑의 폭이 점차 줄어들었고, 그리고 나서 자아라는 대상으로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이와 함께 인간이 바라보는 희망의 범위도 축소되었다”(p.95).

“온 교회(whole church)가 온전한 복음(whole gospel)을 온 세계에(whole world).” 로잔 언약에 주장하고 있는 이 표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미션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표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IVP)의 저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우리의 선교는 항상 성경의 선교 보다 작아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그 현상 자체 보다도 복음의 축소에 대한 폐해가 더 클지도 모른다.

‘광장에 선 기독교’는 로잔 언약의 세 대상에 대한 주제를 모두 담고 있다. 헬리어로는 ‘아고라’로 불리는 광장은 한 지역과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집결하고 나누어지는 곳이다. 사도 바울이 당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모이는 에덴에서 스콜라 철학자들과 변증했듯이 복음은 광장에서 보여야 하고 변증되어야 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의 모든 분야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볼프는 공공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선교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들이 공적 광장에서 어떻게 총체적인 복음으로 사회를 변혁할 것인지에 대한 일이다. 또한 기독교 선교 역사는 우상 숭배적인 거짓 문화에 대항하여 무엇이 참이고 진리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 왔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왜 우리는 공적 광장에서 스스로를 때루기처럼 여겨야 하는가?

선교사들은 보냄을 받은 지역의 공적 광장에서 복음의 참된 빛이 되고 있는가? 그 지역의 거짓 신들과 왜곡된 문화를 변혁하고(transforming) 있는가? 선교사들을 보낸 교회들은 자신들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사들과 같은 비전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광장에서 통하지 않는 기독교는 우리만의 게토에서 제한된 종교이며, 우리가 믿는 신은 제한된 신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가 좁은 길로 가기를 꺼리기 때문이다”(p.47). ❗

송기태 파트너 (인터서브 부대표)

INTERSERVE
KOREA

재정 후원자

2018년 1월 ~ 3월

재정으로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김동준 (사)PMC국제외국협력단 (사)부산의료선교회 (주)MCP코퍼레이션 (주)베노 (주)강투카에스엘 (주)에게스 (주)앤드비온트루저지 (주)아헤드원 (주)에치엠알 (주)우림용선 (주)파리핀 (주)플러시드 (주)일성테크 15남선교회 3권사회 8그룹 Bae Joseph OMF선교부 CORNERSTONE CHURCH CRC Hawaii Central Presbyterian Church In2 Onnuri Community Church KCPG(와싱턴중앙장로교회) LIGHT OF LOVE MISSION Miss Andrea Randall Miss Crystal Kim Mr. & Mrs. Chung Lee Mr. & Mrs. Greg Moore Mr. & Mrs. Steven Kim Mr. Andrew Choi Mr. Byung Geun Kim Mr. Hyun Chang Mr. James Long Mr. Jonathan Choi Mr. Joo-Kwang Yun Mr. Joon Lee Mr. Su Young Kim Mr. & Mrs. Daniel Smith Ms. Kyoungah (Sara) White Ms. Lebekka Shin Ms. Lydia Kim Ms. Mihe Kim Ms. Yoon-Joo Lee New Heaven Korean Church New Life Fellowship OH JACK NEHEMIAH(오재경) SHINING STAR COMMUNITY 가실교회 가이비과산부인과 기을 정교회 강영란 강경범 강구봉 강기현 강남현대차과 강대훈 강동구 강동일 강명현 강석은 강성수 강소영 강신희 강우찬 강원누기회 강은주 강익현 강정민 강주성 강필재 강해정 강현정 강형성 강혜경 강해란 강혜영 강영 강희명 거창제일교회 경기남부 경기아전도회 경신회 경유찬 경원누기회 강은주 개신제일교회 고경오 고두식 고명덕 고문석 고산총회 고영진 고영훈 고윤정 고은미 고은영 고은영 고정숙 고지혜 고지환 고춘제일교회 고현주 고화연 공경애 공석영 공지숙 공진아 광동신 광석현 광은근 광은미 광은희 광정숙 광교산울교회 광안중앙교회 광안중앙교회 초동부 광영교회 광주남부교회 광주동명교회 괴동교회 구경록 구미항곡교회 구성진 구성희 구지성 구지연 구학서 구현남 안국교회 구현영 군산선교회 군자교회 권경미 권광수 권기훈 권도희 권두성 권미영 권상민 권선미 권성연 권성희 권수희 권영기 권은경 권이영 권일환 권정숙 권필상 권하영 권해중 권희영 그루터기 그말총교회 금성전설산업(주) 기독교대한성결교 기독교한국침례회하교회 기쁨의교회B 기업은행 기독교회 기타 갈밭교회 갈성주 김경삼 김경아 김경아 김경원 김경자 김경자 김경주 김경진A 김계영 김교은이 김만중 김광성 김교남 김귀례 김규원 김규희 김근석 김근영 김기배 김기찬 김기환 김기환 김대동 김대우 김대원 김대현 김도형 김도호 김도환 김동하 김두환 김란희 김래영 김만형 김명희 김민욱 김미경 김미란A 김미령 김민식 김미영 김미영 김민지 김민수 김민정B 김민철 김방굴 김방성 김방훈 김방주 김방성 김방서 김방성 김방춘 김방환 김보라B 김보영 김복실 김봉철 김상구 김성덕 김성만 김상준 김성중 김새일 김석연 김선아 김선욱 김선철 김선아A 김성규 김성배 김성수 김성식 김성우 김성재 김성환 김성희 김세나 김세윤 김소영 김소영D 김수민 김수현 김숙영 김순귀 김순열 김술기 김승만 김아영 김아를 김애리 김양수 김에스타 김영국 김영미D 김영수C 김영수F 김명숙 김정우A 김영우D 김명일A 김명지C 김명주 김명준B 김명중 김명혜B 김명호 김명원 김예진 김옥희 김요한 김용문 김용복 김용태 김용환 김우원B 김옥주 김우자 김우진 김윤미 김윤섭 김윤희C 김은경 김은숙 김은정D 김은주D 김은주F 김은진 김은혜B 김인경 김인선 김인숙 김민순C 김민혜김일배 김일용 김재승 김재인 김재호 김진수 김정두 김정숙F 김정우 김정은A 김정자C 김정호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D 김제신광교회 김제중앙교회 김조현 김조현A 김중구 김중선 김중욱 김중주 김중철A 김중철C 김중현 김중희 김주리 김주민 김주연 김주영A 김주영B 김주영C 김준태 김준환 김지영D 김지용 김지영A 김지현A 김지호 김지홍 김지홍B 김진숙 김진욱 김진원 김진이 김진환 김진희B 김창규 김창환 김철민 김철희 김준연 김종근 김태우B 김태훈A 김학수 김한기 김항중 김해정 김해대 김행열 김한희 김희정 김현숙A 김현숙F 김현순 김현아 김현정 김현정D 김현준B 김현진 김현태 김형국 김형철 김혜경 김혜양 김혜영D 김혜영F 김호기 김홍삼 김홍세아 김홍배 김화봉 김화빈 김화연 김효남 김훈기 김희석 김희숙D 김희연 김희영 김희영A 나동교회 나드립교회 나

들독교회 나미영 나성영교회 나성준 나순일A 나순일B 나용화 나유미 나인석 나침반교회 (NACHBAN CHURCH) 나희수 나희우B 남기주선교회 남경아 남광현 남궁화경 남대문교회 남대문선교회 남부산교회 남삼제일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교회 225구역 남서울은혜교회 남서울중앙교회 남소라 남용진 남자도곡구 다락방 남정산 남정우 남주영 남주혜 남타우 남포교회 노경혜 노동은 노동현 노명국 노선희 노승환 노유호 노인계 노인순 노재근 노재걸 노진철 노혜정 높은뜻부교회 높은뜻하늘교회 누기회선교회 늘푸른침례교회 단해물 대구동부교회 대구삼선교회 대구예림교회 대평교회 대전중앙교회 대창교회A 대창교회B 대창교회C 대한예수교장로회영광중앙교회 도경오 도서출판 토기장아도복원 독일함미교회 동부산 MF 동부제일교회 동양인연(김을수) 동은교회 동직실 물가 동천교회 들로스 드림공동체 런던영무교회 류남현 류영민 류세원 류수연 류유진 류현정 류영현 류화정 미산복음교회 미산 일교회 미산제일교회 미하나임 안나교회 맑은물교회 맹주환 모라비안프러트룸 모영진 오홍식 오향교회 목민 회 목민교회 무안동부교회 문광자 문성교회 문성용 문성일 문성철 문승근 문은수 문은희 문재현 문정선 문 선민침례교회 문정일 문정화 문지현B 문진수C 문현아 문형로 문혜영 문혜진 미래클로산나교회 미래연세내 인미옥 민산에 민승재 민인숙 민현준 박경규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춘 박근하 박남일 박대영 박대용 박덕우 박래희 박명동 박명철 박미경B 박민서 박미영 박미자 박민란 박병호 박삼근 박상우 박선미 박선영 박선호 박선희 박성달 박세영 박세영 박세원 박석만 박승희 박수정 박수정 박수현 박승룡 박승민B 박익근 박익만 박익성 박익용 박영욱 박영은 박영희 박용구 박용태 박용준 박유경 박유미 박은비 박은실 박재희 박재형 박정근 박정근 박정미 박정성A 박정성B 박정성C 박정성D 박정화 박준서 박준우 박준원 박준희 박주영A 박준희 박지영A 박지영B 박지은 박진석A 박진석B 박진희 김박찬속 박찬수 박찬우B 박찬민 박찬희 박찬원 박태경 박태성B 박태원 박현영 박현서 박현성 박현숙 박현정 박현주A 박현희 박해란 박해성 박해영 박홍석 박효경 박효숙 박훈재 박희수 박희영 반포침례교회 반포침례교회 몽골목장 발골라데시선교공동체 방영자 방은미 방중현 방경자 배기선 배도루 배미진 배바란 배상필 배상기 배자대 배영희 배운구 배자연 배중욱 배중우 배준석 배창욱/조남숙 배태석 배혜영 백문화 백미희 백몽숙 백성대 백수남부교회 백영훈 백은을 백재서 백지영 백성교회 반달수 반성호 반시연 반현진 복민교회 부경누기회 부산산나교회 부산시민교회 부산중앙교회 부산행복만교회 부전교회 부전선내교회 부평교회 북서울중앙교회 북성교회 분당사랑의교회 인도레슬 분당샘물교회 분당우리교회 분당제일여성병원백은찬 분당중앙교회 비전AGC한중 빛과소금교회 빛과소금의교회 사랑의교회A 사랑의교회B 사랑의직장인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대학 7부 사랑의교회 여성직장인 다락방 사랑의교회기드온선교팀 사랑의교회비바비 사랑의교회청년부 선들한의원 삶이기쁘교회 삼신진(무주) 삼일교회A 삼도제일교회 삼도제일교회 권사회 새대내교회 새대내교회A 새샘물교회 새내내교회 새은혜교회 새생명교회 새생명연원교회 새강서 새강북 새강에 새강원 서둔교회 서머나교회 서명구 서민지 서복권 서서울F 서애란 서명례 서영진 서울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서울우림교회 서울제일교회 서울중앙교회 서울평안교회 서울출렁교회B 서울준서 서은선 서정숙 서정영 서정복 서정화 서주연 서지영 서지자 서진 서진원 서춘연 서형민 서혜림 석정은 선교제일교회 선교조이인 서석근 선일교회 선한목자교회 선한목자선교회선한청사기교회(Good Stewards Church) 설태민 성가교회 성남노회 성남산성교회 성덕교회A 성도만과 성민구 성보석 생민교회 성산교회 성지희 성원교회 세계로병원 간호사회 세민교회 세한제일교회 소노마침례교회 (KOREAN BAPTIST CHURCH) 소영교회 소영제일교회 소해성 순경선 순계련 순관희 순규상 순기원 순미경 순선희 순영미 순원민 순언구 순영숙 순정영 순지향 순현일 순혜진 순호정 송계용 송도제일교회 송문수 송

상 한 송성규 송승득 송영표 송우석 송원석 송윤석 송은혜 송인진 송인규 송재현 송장국 송찬영 송태영 송태원송파시목교회 송파제일교회 송항미 송혜경 수서은혜교회 수연연구회 수영로교회 수영로교회 청년부 수지열린교회 수지교회 순복음여수교회 순천북부교회 순천늘봄교회 스피리탈리티 송미라 신강음 신경성 신교일 신권아 신동규 신동영 신두리 신득호 신보표교회 신석호 신석환 신선련 신선의 신성교회 신애선 신영재 신옥경 신옥순 신용교회 신윤근 신윤정 신은수 신은옥 신인실 신인호 신일호 신진수 신준우 신중호 신찬미 신항숙 신항숙A 신현급 신혜경 신홍교회B 심명인 심민수 심선주 심우진 심우혁 심재철 심현경 이가 폐열병성교회 이광도교회A 아사인미션 이네티크놀러지 인강 인강현 인광중 인광호 인규식 인미희 인병우 인신동산교회 인성훈 안삼미 안성영 안승희 안영리 안영록 안은경B 안은숙 안은숙 안인혜 안재현 안진숙 안진영 안창남 안철희 안태호 안태훈 안태영 안태진 안수교회B 안동훈 양명철 양무리교회 양문교회 양문호 양신한현 양세용 양승봉 양승하 양신성 양재만 양정숙 양준모 양현주 어현준 엄미현 엄성근 엄선린 예스키구름속 예수동문교회 예수문교회 예수제일교회 여영대 여운성 여은희 여은도 순복음교회 여진희 연미향 연세대원주 과대학교회 연원선교회 연영준 연정교회 연태진 연현지 연희교회 열린교회 열린문교회 델리 목장 열방교회 열방교회B 열방교회C 열방교회D 열방교회 열혜순 열광교회A 열덕교회 영주교회 영주시교회 영파산교회 영화교회 예담교회 예담중앙교회 예대욱 예민사 예성교회 예성열 예수교대한성령교회로 예수병원 간호부 신우희 예수인교회 예수인교회 청년교회 예수인교회 열방기도원 오경실 오경채 오규택 오륜교회 선교부 오미연 오보영 오부희 오산교회 오세환 오숙현 오승아 오영실 오은주 오은희 오창남 오하연 옥순애 온누리교회 온리선교회 온사랑교회 웅산교회 웅평교회울산교회 울산세상교회 울산시교회 온누리목장 울산제일교회 원스 탐관세법안전청 원종부 필광교회 월나교회 위광량 위안상 위아외과 유성경 유순남 유순하 유영미B 유영숙 유영진 유영철 유운선 유은지 유인형 유재경 유재연 유재희 유정준 유정환 유주희A 유주영 유지현A 유진영A 유정훈 유준광 유준길 유한익 유현기 유현석 유현성 육대교회 육근해 육지선 육영혜 윤기주 윤미선C 윤미옥 윤민수 윤선복 윤승민 윤성희 윤승영B 윤이영 윤연수 윤영주 윤재옥 윤정혜 윤준택 윤지숙 윤재진 윤태용 윤해옥 윤현숙 윤향남 윤혜성 윤화자 윤화홍 은진교회 은화교회 은혜의집 을지로교회 저영삼교회 을지로교회 한나희 의정부제일교회 이강철 이강태 이근희B 이경미D 이경연 이경은 이영중 이광우 이광배 이규석 이규석 이규순 이근호 이나래 이대영 이대영 이대웅 이대준 이대진 이돈선 이동연 이동화 이명경 이명규 이명숙 이명숙C 이미선A 이미자 이민철 이민형 이병철A 이부근 이수우 이상규 이상돈 이상수 이상영 이상은 이상은 이상현A 이상훈A 이상훈B 이상희 이상희 이선아 이선경C 이섭 이상경B 이상근 이상우 이상은 이상현B 이상훈B 이상훈C 이상훈 이상희A 이소영 이소영A 이소영C 이소영D 이송미 이송미A 이송희A 이숙국 이숙목 이순미 이순형B 이순홍 이순도 이승주 이승진 이승현A 이승훈A 이승훈B 이신욱 이신욱 이신준 이연수 이연희C 이영민C 이영배 이영중 이영중B 이영미 이예주 이원희 이원희B 이우연 이원경A 이원숙 이원신 이원우 이원형B 이우순 이윤경 이윤미A 이윤숙 이윤휘 이은경A 이은경D 이은선 이은숙 이은우 이은자 이은미 이은진 이은정 이은혜 이은혜D 이재숙 이재욱 이재욱 이재원 이재은 이재형 이정 이영경B 이영숙C 이영중C 이영재 이영희A 이영희B 이영희C 이혜경 이혜진 이혜정C 이호성 이호철 이홍규 이홍길 이화동창성교회기도회 이화여자대학교 햇빛회 이화민 이호섭 이호성 인랜드교회 인푸리안교회인 일동교회 일신여자대학원 일요삼일경래 임광호 임대범B 임마루-엘션교회 임미선 임선아 임성식 임성일 임성현 임수경

임애숙 임영도 임영민A 임영실 임영자 임유호 임재량 임정숙 임정은 임준상 임지현 임준아 임현직 임형준 임혜진 임황용 직전중앙교회 장경민 장금희 장명순 장명옥 장 영미B 장미 장미선 장미숙 장성준 장수영 장수인 장수정 장승기 장승은 장승익 장영경 장영진 장영창B 원실 장우 장윤석 장진제일교회 장진호 장중호 장철보 장재경 장현열 장현성 재송제일교회 전경희A 전영옥 전미이 전상모 전성대 전성진 전승호 전영자 전영호 전용호 전재우 전재형 전중철 전주노희 전주미래교회 전주사랑교회 전주새중앙교회 전주온누리교회 전주완산교회 전주제자교회 전지현 전현규 정강진조지영 정경덕 정경애 정경용 정경원 정광열방교회 정광덕 정광렬 정구영 정금미 정낙원 정남희 정대연 정도연 정동우B 정명순 정명심 정명철 정미정 정미조 정만규 정방실 정보영 정선옥A 정선옥B 정성구 정성철 정성태 정성현 정수자 정수한 정순열 정승우 정승은 정선호 정원봉 정원주 정원철 정영아 정영은 정영준 정용호 정용환 정유석 정은희 정재성A 정재우 정정호B 정중영 정준교 정준희 정지영A 정지혜 정진이 정창생 정철오정철원 정대근 정하나 정현규후원회 정현철 정현주 정혜연 정효영 정희원 정희원 제영도교회 제영도교회 정년회 제나철 제명권 제사도교회제성교회 제현옥 조경태 조경표 조광희 조동래 조동윤 조동주 조봉기 조석주 조석현 조선희 조소민 조순애 조시철 조애신 조영녀 조영남 조영민 조영태 조영호 조옥희 조용중 조원삼(조세) 조윤숙 조윤주 조윤형 조재을 조재호 조장익 조장자 조진영 조진용 조창우 조한규 조현구 조형제 조혜원 조희선 조희연 좋은나무교회 주경선 주내교회 주님의교회 주란 주상용 주안장로교회 (영천제단) 주은지 주은혜교회 주외빛교회 주천우리교회 중앙제일교회 중원교회 지구선 지구촌교회 지삼이 지용한 지윤희지하식 진기을 진명해피 진삼미 진성미 진성환 진영희 진주성복교회 차경남 차미를 차양선 차영주 차창수 참중교회 창대교회 창원남산교회 창원반림교회 창원세광교회 창원한빛교회 창조교회 창조선교 채귀순 채규길 채만수 채석범 채영희 천봉권 천보이 천안장로교회 천경남 천조영 천현경 천희복 중앙안교회총회합신세계선교회 최경아B 최경인 최경하 최경하 최관철 최광민 최광현 최근희 최기상 최대환 최태호 최명숙 최민희 최미을 최영민 최영미 최성식 최상태 최상현 최상훈 최석훈 최선미C 최선아 최선하 최성우 최성연 최세영 최수행 최숙희 최순이 최사승 최시철 최선재 최연미 최영미 최영순B 최영순A 최영준 최영현 최요한 최원규 최원미 최원우B 최은정A 최은경 최은용B 최은중 최은화 최은희 최의연 최인영 최인현A 최인희 최자영 최자성 최재경 최재필 최재혁 최정희B 최중희 최준길 최지은 최지희 최진경 최진성 최진어 최진영 최진원 최진석 최장명 최준강 최태용 최한범 최한주 최형철 최홍남 최홍자 추장수 춘천소망교회 춘천출자김리교회 치과의료선교회 천안교회 천원회수도교회 침선제일교회 콘터교회 트리니티소프트 평촌새중앙교회 평화동선교회 포도나무교회 포맨이A 포항세명기독교병원 포항중선교회 포산아 푸르른교회 하기수 하나교회 하나교회 하늘빛우리교회 하도훈 하성진 하수용 하승창 하트트슬루스(예배) 하은진 하영명 하희선 하혜연 한국독립교회 한국동성교육재단 한국선서사누이온 한국중앙교회 한기수 한기영 한나-낙일빌 한대인 한동원 한미음교회 한명원 한무열 한미현 한민광 한빛교회 한성영 한성완 한성옥 한성환 한신미 한선식 한성호 한소교교회C 한승갑 한영교회 한영주 한우리교회 한홍수 한도성 한현 한희경 할렐루아교회 함께하는교회 함께하는교회A 합명주 합미영B 합유정 합중현 합현식 한도교회 해동교회B 해운대대리교회 해운대선일교회 해운대제일교회 행복만복장 향상교회 하계원 해민관 하성호 하수진 하정례 허혜숙 허효선 허희정 험시 비목장 현대선 현대중교 현인철 형제선교회 해민교회 혜성교회 호산나교회 흥기성 흥기철 흥룡교회 흥미경 흥병순 흥석경 흥성진 흥순신 흥흥기 흥영민 흥영표 흥은주 흥은진 흥익교회 흥지은 흥지혜 흥희의 흥희복 흥향숙 회암중앙교회 황구연 황국성 황국성민선속 황민철 황민태 황보민 황성진 황수경C 황영민B 황영희 황은정 황은혜 황우주 황인영 황인태 황희희 황효숙 황석은혜교회 할리교회

인터서브코리아의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후원계좌 KEB하나 071-13-20258-5 (인터서브코리아)
지료후원 7530366 (인터서브코리아)
CMS (Cash Management Service) 후원 전화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선교사 개별 후원계좌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승금 액수나 송금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 지료용자가 필요한 분이나 처음 후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서브코리아 재정담당 Tel_ 070-4352-6967
 E-mail_ finance2isk@gmail.com Web_ www.interserve.kr

인 터 서 브 프렌즈

통권 127호
2018 SPRING

우리는 누구 입니까?

인터서브는 1852년부터 아랍과 아시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총체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비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목적 선언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핵심가치

1. 하나님을 의존함
2. 공동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4. 파트너십
5. 온전성,
6. 총체적,
7. 종 된 섬김

Serve Nations with A Prayer

열방을 위한 인터서브 S.A.N.P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보세요.

국내

서울/경기 : 매달 셋째 주 월요일 7시 (분당 미곡역 인터서브 사무실)

담당자 : 윤연수 매니저 070-4352-6510

부산 : 매달 셋째 수 목요일 8시

담당자 : 정동훈 이사 010-2551-9395

광주 / 담당자 : 정동훈 이사 010-3646-8291

대구 / 담당자 : 박종원 이사 010-5310-8354

대전 / 담당자 : 유정준 이사 010-5404-7175

원주 / 담당자 : 윤기주 이사 010-2316-2696

전주 / 담당자 : 조진웅 이사 010-3616-2338

포항 / 담당자 : 최바울 이사 010-8521-3491

해외

뉴질랜드 / 담당자 : 신규식 이사 (+64) 642-141-7756

호주 / 담당자 : 최규현 이사 (+61) 416-467-397

미국(LA) / 담당자 : 박영국 목사 (+562) 972-7702

캐나다(토론토) / 담당자 : 임재량 목사 (+1) 647-291-290

인터서브 계간지 2018년 봄호 통권 127호

발행인 조샘

편집인 이나라

발행일 2018. 4. 18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1206

전 화 070-4352-6510 팩스 031-728-4777

이메일 interservekorea@gmail.com 홈페이지 interserv.kr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interservekorea](https://www.facebook.com/interservekorea)

디자인·인쇄 피터폴 010-3373-3750

<프렌즈>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 할 수 없습니다.

experience
Life As Mission

The value of interserve
하나님을 의지함
Dependence on God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또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듣고 순종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
